

제 69 강

밧모섬의 계시와 소아시아 일곱 교회

■ 성경본문 요한계시록 1:1-3:22 ■

프렐류드(Prelude)



소아시아 일곱 교회

오늘 우리는 긴 신앙의 여정을 지나 하나님
의 구원드라마 “에필로그”(epilogue)인 요한계시
록에 도달했습니다. 요한
계시록은 성경 중에서도
가장 난해한 성경입니다.
이상한 상징과 환상들 그
리고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밧모섬에 억류되어 중노동을 하고 있던 장로 요한이 당
시 일고 있는 로마 제국의 박해와 그 속에서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와
인내를 두고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승리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약속
하시는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뵈고 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은
것을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보고 들은 계시와 말씀을 여러 상징과 환상으로 ‘암
호화’(coding)한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도록 ‘암호’로 교회와 신도
들을 위로하고 격려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니다.

I. 주요 내용

1. 밋모섬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요한계시록 1:1-20)
2.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요한계시록 2:1-3:22)

III. 시대적 배경

주후 64년에서 시작하여 68년까지 진행된 네로의 박해는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순교로 몰고 간 대박해였습니다. 그 후에 몇 년 동안 평온하던 로마 제국은 '도미티아누스'(Domitianus)가 황제가 되면서 자신을 '신'(神)으로 선언하고, 모든 로마인과 점령지 사람들의 경배를 강요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온갖 시련과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박해 기간은 주후 81년에서 96년으로 무려 15년이라는 긴 기간이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에게 황제 경배는 죽음이 아니면 유배였습니다. 장로 요한도 신앙 때문에 체포되어 에게해의 작은 섬 밋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중노동과 기아로 지쳐있던 노구 장로 요한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일곱 금 촛대 사이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인자를 보았습니다(계 1:12-13). 그리고 하시는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계 1:19). 그 후에 요한은 석방되어 에베소에 돌아온 후 밋모섬에 본 계시를 써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낸 것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때를 주후 100년 이후로 추정합니다.

〈연대표〉

네로의 박해(주후 64)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요한계시록 기록(81-96)

III. 말씀과 해석

1. 밧모섬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요한계시록 1:1-20)

밧모섬은 지중해 동북부, 소아시아 남쪽에 위치한 초승달 모양의 작은 섬입니다. 그러나 이 섬은 로마 제국의 전략적 항구였으며, 죄수들이 감금되어 노동을 강요받던 험하고 외로운 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계 1:9)하다가 체포되고 유배되어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던 어느 날 장로 요한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순서는

- (1)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알려 주시고
- (2) 그다음은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들려주고
- (3) 셋째는 요한이 듣고, 보고, 받아 적게 하고,
- (4) 넷째는 그 기록을 읽고 지키는 자입니다(계 1:1-3).

‘주의 날’(안식일 다음 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요한은 돌연히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아보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계 1:1, 1:5) “구름을 타고 오실 이”(계 1:7)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일곱 금 촛대’ 사이에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눈은 불꽃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오른손에 일곱별’이 있고, ‘얼굴은 해’같이 비추는 인자셨습니다(계 1:12-16).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으나 지금 살아계셔서 사망의 열쇠를 가지시고(계 1:18) 만물을 지배하시는 알파요(처음) 오메가(마지막)(계 1:8, 17)이셨습니다. 일곱별은 일곱 교회 사자요, 일곱 촛대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고난 중에 있는 일곱 교회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였으며, 장로 요한은 이에 대한 증인이었습니다(계 1:4, 20).

2.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계 2:1-3:22)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이었으며, 밖으로부

터 가해온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고난을 견디고 믿음을 지킨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교회만을 제외하고 다섯 교회는 주님의 엄중한 견책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은밀히 행하는 행위들 때문이었습니다.

일곱 교회에 보낸 칭찬, 책망, 권면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게시자	칭찬	책망	권면
에베소	오른 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행위 인내 수고 악한 자를 용납지 않음 거짓 사도를 폭로시킴 게으르지 않음 니골라당을 미워함	처음 사랑을 버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서머나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환난과 궁핍 속에 부요한 신앙		고난을 두려워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버가모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믿음을 버리지 않음	우상숭배자 발람을 따름 니골라당이 있음	회개하라
두아디라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나중이 처음보다 많음	자칭 선지자 이사벨을 용납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회개를 안함 그 무리와 같음 사탄의 흥계를 모름	회개하라 굳게 잡으라
사데	하나님의 일곱 명과 일곱 별을 가진 이	소수의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이 있음	살은 것 같으나 죽은 자의 행위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으리라
빌라델비아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적은 능력으로도 배반치 않음 인내의 말씀을 지킴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라 오 디 게 아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 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차지도 덮지도 않 은 미지근한 행위 스스로 부요하다 하나 자신의 수치 를 알지 못함	불로 연단한 금 을 사서 부요케 하라 흰 옷을 사서 벗 은 몸을 가리라 안약을 사서 눈 에 발라 보게 하 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	---	--	---

1.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요한계시록 2:1-7)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상업 도시이고, 종교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황제 숭배와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행 19:27, 35). 주후 53-56년경 바울이 세운 교회였으며(행 19:8, 10), 제자 디모테를 파송하여 교회를 돌보게 했습니다(딤후 1:3). 그러기에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중심 교회로 부각되었습니다.

- a. 칭찬-악한 사람을 용납하지 않고 니고라당을 배척
- b. 책망-처음 사랑을 잃음(계 2:4)
- c. 권면-이기는 자(계 2:7)

2.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요한계시록 2:8-11)

서머나는 에베소 다음으로 큰 상업 도시입니다. 그곳에는 그리스도교를 시기하는 유대교인들의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계 2:9).

- a. 칭찬-환난과 궁핍 중의 풍요한 신앙
- b. 책망-없음
- c. 권면-죽도록 충성

3.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요한계시록 2:12-17)

버가모는 각종 이방인이 모여 사는 도시였습니다. 이방신 사당과 우상이 즐비했으며 사이비 종교도 성행하였습니다.

- a. 칭찬 - 믿음을 굳게 지키(계 2:13)
- b. 책망 - 1) 발람을 따르는 자(계 2:14)
2) 니콜라당 추종(계 2:15)
- c. 권면 - 이기는 자

4.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요한계시록 2:18-29)

두아디라는 별로 크지 않았고 황제 숭배 신당도 없었습니다. 적은 무리이지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사업도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 a. 칭찬 -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계 2:19)
- b. 책망 -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 행음, 우상 제사(계 2:20)
- c. 권면 -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계 2:25)

5. 사데 교회에 보내는 편지(요한계시록 3:1-6)

사데는 가장 사치스럽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주민들도 사치스럽고 화려한 종교 의식도 성행했습니다. 외견으로는 역동감이 있었으나 안으로는 타락과 부패가 만연하였습니다.

- a. 칭찬 - 더럽히지 아니한 소수의 그리스도인(계 3:4)
- b. 책망 - 겉은 살았으나 속은 죽은 자(계 3:1-2)
- c. 권면 - 이기는 자(계 3:5)

6.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요한계시록 3:7-13)

빌라델비아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 주민들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식민지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 교회 교인들은 비록 수도 적고 신앙의 연륜도 짧았지만 신앙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 a. 칭찬 - 작은 능력으로 신앙을 지킴(계 3:8)
- b. 책망 - 없음
- c. 권면 -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계 3:11)

7.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요한계시록 3:14-22)

라오디게아는 부요한 도시였습니다.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고 고리 대금업이 성행했으며 병원까지 있었습니다. 주후 60-61년경 지진이 일어나 도시가 파괴되었을 때도 라오디게아 주민들이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도시를 재건할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라가 세운 것으로 추정됩니다(골 4:12-13). 바울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심을 갖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도 읽게 하라고 권하였습니다(골 4:16).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초기에 설립된 소아시아 중심 교회 중의 하나였습니다.

- a. 칭찬 - 없음
- b. 책망 -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함(계 3:15)
- c. 권면 - 불로 연단(계 3:18)

IV. 성찰과 나눔

1.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모습을 솔직히 그

리고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자화상들입니다. 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으며, ‘선’(善)과 ‘악’(惡)이 공존하는 불완전한 공동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우리는 한 대목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일곱 교회 가운데 다섯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지만, 두 교회인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고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섯 교회는 신앙을 잘 지키고 환난을 이겼지만, 신앙 그 뒤에 숨겨놓은 우상이 숨어있었습니다. 그것은 발람, 이세벨, 니골라로 표현되었지만, 하나님 외의 숨겨놓은 신들이었습니다. 불꽃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인간 교만과 위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 그 뒤에 이면계약이 따로 없었습니다. 믿음 따로, 행위 따로가 아니었습니다. 믿음 그 뒤에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족했습니다. 이때 주님은 이 두 교회를 칭찬만 하시고 책망은 없이 격려만 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계 2:11)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하나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계 3:12)

3. 오늘 세계교회와 한국교회를 위기로 몰고 가는 숨은 원인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빙자한 출세, 복음을 빙자한 왕국화, 믿음을 빙자한 축복 같은 것들이 아닌가를 생각합니다.